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지리 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

성정원* · 채나미**

An Analysis of Geography Teachers' Perceptions of Economic Geography as a School Subject

Jeong-won Seong* · Na-mi Cha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과 과목의 교육적 가치 및 현장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리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 선택과목을 바탕으로 62개의 내용 요소와 8개의 과목 인식 문항을 구성하고, 전국의 지리 교사 1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전체 적합도는 평균 4.1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간적 불균등, 글로벌 가치사슬, 초국적 기업,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및 상품사슬 등 현대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의 관계를 다룬 내용은 높게 평가된 반면, 고전 입지 이론, 전통 무역 이론 및 자원의 단순 분포와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교육 필요성에 비해 학생 선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을 위해 현대 경제 공간의 변화와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진로 연계와 기존 지리 과목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경제지리, 내용 적합성, 지리 교사 인식, 차기 교육과정 재도입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ing the subject of economic geography in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by analyz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elements of economic geography and geography teachers' perceptions of the subject's educational value and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schools. To this end, based on the economic geography subject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and the geography elective subject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62 content elements and 8 items assessing perceptions of the subject were developed, a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18 geography teachers nationwi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s, one-way ANOVA, and paired-samples t-tests, whil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open-ended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appropriateness of the economic geography content elements was rated highly, with a mean score of 4.19. Content elements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economic activities and regional change, such as spatial inequality, global value chai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energy transition, food security, and commodity chains, were rated highly. In contrast, classical location theories, traditional trade theories, and basic descriptions of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received relatively low ratings. Teachers' perceptions of the economic geography subject were generally positive, but the perceived likelihood of students choosing the subject was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its perceived educational necess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introducing economic geography requires content centered on changes in contemporary economic space and real-world issues, stronger links to career pathways, and clearer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geography subjects.

Key Words : Economic geography, Content appropriateness, Geography teachers' perceptions, Reintroduction into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rdens@gnu.ac.kr)

**대금고등학교 교사(Teacher, Daegeum High School, coskal@korea.kr)

I. 서론

세계 경제의 변화가 곧 공간의 재편으로 나타나는 오늘날, 경제지리는 현대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지역 간 불균등 성장은 세계 경제의 공간 구조를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별 지역의 경제활동을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 공간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한계와 불안정성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의 지역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로의 재편과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본격화되고 있다(구양미, 2020; 이병민, 2021).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가 지역을 일방적으로 동질화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글로벌 스케일과 로컬 스케일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단순한 장소성을 상실한 초국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 지구적 생산·분업 체계가 구체적인 지역의 산업 집적 및 제도적 환경과 결합하여 국지화(localization)되는 다중 스케일(multi-scale)의 공간적 과정이다(이종호·조철기, 2026; 이종호·채민수, 2026). 즉, 전 지구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수직적 분업 사슬이 확대되더라도, 가치의 실질적 창출과 혁신은 구체적인 장소의 지역혁신체계(RIS) 및 행위자 간 관계망 속에서 구현된다(이종호·채민수, 2026). 이러한 관점은 Massey(2005)가 주장한 관계적 공간관과 맥락을 같이하며, 장소 간 초국적 연결성을 다중 스케일(multi-scale) 관점에서 파악하는 지리적 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리적 관점에서의 경제 교육은 이처럼 다차원적인 공간 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교과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김민우·박선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사회 영역의 경제 관련 단원이 주로 국제 거래의 효율성, 자유무역의 필요성 등 시장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관점 위주로 내용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리 영역은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초래하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불평등, 본국의 산업공동화 및 일자리 감소, 개발도상국의 노동 착취 및 환경 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까지 성찰적이고 균형 잡힌 시

각으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종호·조철기(2026)는 이러한 지리적 해석 및 맥락화 능력을 ‘경제지리 문해력’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균등한 공간 구조에 대한 통찰과 공간 정의(spatial justice)를 지향하며 실천하는 ‘비판적 공간 시민성(critical spatial citizenship)’의 함양이 경제지리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임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리적 지식을 결합한 경제 교육은 학생들이 실세계의 공간 문제를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비판적 공간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지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정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해 왔다. 경제지리는 교수요목기부터 특수경제지리라는 과목으로 편성되었고 1950년대에는 국가 주요 시험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졌다(안종욱, 2012). 그러나 1954년 1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이후 경제지리는 실업계 과목으로 재편되었고, 5차와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못하였다(박선미, 2018). 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독립된 과목으로 재편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 내에서 경제 공간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틀은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채나미·성정원(2026)은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리 내용 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 선택과목인 세계시민과 지리와 한국지리 탐구의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 과거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56.1%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지리가 독립 과목으로서 사라진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내용 요소를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지리 교육의 사회적 필요성과 교육과정상의 공백이 동시에 확인되는 상황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교과 내용의 사회적, 교육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지리 교사의 인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교사의 인식과 지도 가능성은 새로운 과목의 개설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가치사슬, 모빌리티 변화, 공간적 불평등 등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 공간 변동과 글로벌 경제 체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지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과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치 및 개설 가능성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현장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제지리 과목의 내용 요소와 교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리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는 크게 2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이 개설될 경우,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은 경제지리 교과서가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7차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에서 경제지리와 관련한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김인엽(2025)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으로 경제지리 과목의 유용성, 교사 수용성, 교수 가능성, 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진 2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교차 검토한 후, 지리교육을 전공한 교수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교수 3인은 지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및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교과교육 전공자로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경제지리의 내용 요소 반영 여부와 교육과정 간 내용요소 연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직 지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문항의 명료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설문은 경제지리 개념의 학문적 타당성 검증보다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적합성 및 교사 인식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내용 검토진으로 경제지리 내용학 전문가보다는 지리교육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진은 교수 3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내용, 표현, 구성을 보완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다.

설문은 2026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의 지

표 2. 연구 대상

배경 변인	구분	빈도(N=118)	비율(%)
성별	남	61	51.7
	여	57	48.3
학교 유형	국·공립	97	82.2
	사립	21	17.8
학교급	중학교	103	87.3
	고등학교	15	12.7
재직 기간	10년 미만	62	52.5
	10년 ~ 20년	32	27.1
	20년 이상	24	20.3
7차 교육과정 경제지리 과목 교수 경험	있음	31	26.3
	없음	87	73.7
7차 교육과정 경제지리 학습 경험	있음	34	28.8
	없음	84	71.2
근무 지역	강원·수도권	71	60.2
	경상권	25	21.2
	제주·전라권	14	11.9
	충청권	8	6.8

표 1.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주요 내용
경제지리 인식에 대한 설문지 작성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초안 작성 ○ 설문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지리교육과 교수 3명)
지리 교사 대상 설문	○ 대상 및 방법: 전국 지리 교사 118명, 온라인 설문조사 ○ 기간: 2026. 03. 21. ~ 2026. 03. 25.
설문 결과 양적 분석	○ 기술통계 분석 ○ 집단 간 차이 검증(t-test, ANOVA)
설문 결과 질적 분석	○ 서술형 문항에 대한 연구자 2인의 질적 분석
내용 분석 결과 해석	○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결과 해석 및 정리

리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은 표 2와 같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성별은 남성 61명(51.7%), 여성 57명(48.3%)이고, 근무하는 학교의 유형은 국·공립 97명(82.2%), 사립 21명(17.8%)이다. 현재 근무 중인 학교급은 중학교 103명(87.3%), 고등학교 15명(12.7%)이며, 재직 기간은 10년 미만 62명(52.5%), 10년 이상 20년 미만 32명(27.1%), 20년 이상 24명(20.3%)이다. 경제지리 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사 31명(26.3%), 강의 경험이 없는 교사 87명(73.7%)이고, 경제지리 수업을 수강한 교사 34명(28.8%), 경제지리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교사 84명(71.2%)이다. 근무 지역은 강원-수도권 71명(60.2%), 경상권 25명(21.2%), 제주-전라권 14명(11.9%), 충청권 8명(6.8%)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3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을 물어보는 62문항은 Cronbach's α 계수가 .977,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8문항은 Cronbach's α 계수가 .932로 산출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서술형 문항의 응답은 질적 내용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응답을 반복 검토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유사한 응답을 범주로 통합하고, 연구진 간의 협의 를 통해 범주별 주요 내용과 대표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 결과를 양적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경제지리 내용 요소 적합성에 대한 인식 분석

1)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단위별 기술통계

본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이 재도입 될 경우, 어떠한 내용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리의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와 이와 연관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종합하여 전국의 지리 교사 118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설문에서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경제지리 과목이 차기 교육과정에서 재도입될 경우 해당 내용이 과목의 내용 요소로 적합한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표 3.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단위별 기술통계

대단원	M	SD	중단원	M	SD
I.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4.34	0.61	I-1.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	4.26	0.72
			I-2. 세계 경제 발전과 경제 환경 변화	4.41	0.64
II. 자원과 자원 문제	4.10	0.71	II-1. 자원과 환경	4.31	0.72
			II-2. 식량 자원	4.06	0.73
			II-3. 광물 및 에너지 자원	4.26	0.79
			II-4. 물 자원과 삼림 자원	3.85	1.04
III. 공업과 무역	4.16	0.74	III-1. 공업과 인간 생활	4.21	0.90
			III-2. 공업 입지 이론	3.92	0.95
			III-3. 공업 발달과 공업 지역	4.29	0.78
			III-4. 무역과 경제 발전	4.18	0.85
IV. 서비스 산업	4.26	0.69	IV-1. 서비스 산업과 인간 생활	4.41	0.73
			IV-2. 도·소매업의 입지와 변화	4.13	1.04
			IV-3. 교통과 정보 및 지식 산업	4.33	0.71
			IV-4. 여가 및 관광 산업	4.22	0.90
V.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4.06	0.85	V-1. 지역 개발의 이론과 실제	4.08	0.90
			V-2.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	4.04	0.97
VI.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4.23	0.80	VI-1. 세계 경제 협력기구와 다국적 기업	4.23	0.84
			VI-2.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	4.25	0.96

각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단위별 기술통계를 보면 표 3과 같다.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대단원별 기술 통계 결과를 보면, I.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M=4.34, SD=0.61), IV. 서비스 산업(M=4.26, SD=0.69), VI.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M=4.23, SD=0.80), III. 공업과 무역(M=4.16, SD=0.74), II. 자원과 자원 문제(M=4.10, SD=0.71), V.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M=4.06, SD=0.85)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원이 적합성에 대한 평점이 5점 척도에서 4점을 넘고, 대부분 표준편차가 1 미만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 내용 요소 전반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높은 I.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IV. 서비스 산업, VI.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경제체제와 산업구조에서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 관한 내용으로, 현실의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II. 자원과 자원 문제와 V.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낮는데 이는 물 자원, 삼림 자원,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 등의 내용 요소가 경제지리 고유의 내용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 경제지리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기반으로 62개의 평가 요소에 대해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평균은 4점 이상으로 높고, 표준편차는 1 미만의 수렴된 의견의 결과를 보이

지만,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지리 교육에 필요한 내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하위 요소별 기술통계

전체 62개 내용 요소의 평균은 4.19(SD=0.64)로, 교사들은 제시한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지만, 내용 요소별로 보면 2.95~4.64까지 응답의 결과가 분산되어 있다. 적합성을 내용 요소별로 분석해 보면 경제지리 교육에 필요한 내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I.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단위

‘I.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4와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34(SD=0.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단위에서는 세계 경제 발전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루면서 글로벌 경제체제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경제블록 등의 개념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적 불균등, 우리나라의 공간적 불균등의 사례 등에 대해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요소는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회 영역의 ‘경제’ 과목과 차별화된 경제지리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이다. 교사들은 경제학적 기초 개념의 단순 나열적 기술을 우려하며, “경제의 기본 개념은 가급적 알게 다루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표 4. I. 경제 활동과 지역 발전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I-1-1	• 경제활동의 의미와 종류	4.05	0.94
I-1-2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4.18	0.92
I-1-3	•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변화 - 성장지역(4차산업)과 쇠퇴지역(제조업) 사례	4.55	0.73
I-2-1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격차 - 공간적 불균등, 글로벌 가치사슬(GLVC)	4.64	0.63
I-2-2	•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자연적 요인, 인문적 요인	4.26	0.88
I-2-3	• 세계화와 지역화 - 글로벌라이제이션, 다중 스케일 관점의 세계 시민성	4.37	0.93
I-2-4	• 국가 간 지역 협력체와 경제블록 - EU, AU, ASEAN, USMCA, MERCOSUR - RCEP, IPEF, BREXIT	4.35	0.96

개설된 경제 과목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경제와 지리의 경제에서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지리의 관점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공간적 맥락과 장소성을 강조하는 지리 교육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반영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내용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본 대단원의 평균 점수는 4.34(SD=0.61)로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이 단원을 “현재의 글로벌 경제 및 사회적 변화 흐름을 다루기에 매우 유용한 지역 변화 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성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세계지리적 초점 위에서 최신 경제 패러다임과 지리적 요소를 유연하게 결

합하는 형태의 트렌디한 교과서 및 자료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블록 등의 상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교과서 집필 시 시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Ⅱ. 자원과 자원 문제’ 단원

‘Ⅱ. 자원과 자원 문제’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5와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10(SD=0.71)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단원에서 자원의 의미, 물 자원, 삼림 자원, 광물자원 등 주요 자원의 분포와 관련한 내용 요소는 적합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식량 자원에서 상품사슬과 공정무역,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 에너지 자원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표 5. Ⅱ. 자원과 자원 문제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 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Ⅱ-1-1	• 자원의 의미와 특성	4.13	0.95
Ⅱ-1-2	• 자원 개발에 따른 문제 -환경 문제, 고갈 문제, 국가 간 분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 전환적 삶	4.43	0.77
Ⅱ-1-3	• 자원 고갈에 따른 문제	4.36	0.88
Ⅱ-2-1	• 농업 발달 조건과 농업임지론 -튀넨의 고립국 이론	2.95	1.37
Ⅱ-2-2	• 우리나라 농업 발달과 지역적 분포 -기후 위기 대응, 농산물 차별화, 스마트 농업, -제조, 관광, 서비스가 결합된 6차 산업	4.21	1.00
Ⅱ-2-3	• 세계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 -식량작물, 기호작물, 축산물 -상품사슬,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소비	4.53	0.78
Ⅱ-2-4	• 식량 자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지역 간 식량 수급 격차 문제 -곡물 메이저 기업의 독점 문제 -식량 안보, 식량 주권	4.55	0.73
Ⅱ-3-1	• 주요 광물 자원의 생산, 소비, 분포, 이동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3.91	1.12
Ⅱ-3-2	• 주요 에너지 자원의 생산, 소비, 분포, 이동 -화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천	4.27	0.93
Ⅱ-3-3	• 에너지 자원 문제 해결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소비에 따른 공간 불평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4.61	0.64
Ⅱ-4-1	• 물 자원의 생성, 분포, 이용 특성	3.91	1.08
Ⅱ-4-2	• 물 자원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	3.92	1.06
Ⅱ-4-3	• 삼림 자원의 생성, 분포, 이용 특성	3.80	1.08
Ⅱ-4-4	• 삼림 자원의 기능과 관리 방안	3.76	1.11

믹스 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분포와 특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원의 가치사슬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적 불균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실세계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 농업 입지 이론인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대한 현대적 재구성 요구이다. 고립국 이론은 전체 62개 내용 요소 중 가장 낮은 2.95(SD=1.37)의 적합도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대의 경제지리학에서 고립국 이론이 갖는 실질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튀넨 제외”와 같은 단순히 이론을 배제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이론 자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 현대 사회에 맞추어 분석하고 적용해 보는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절충적 대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 암기 학습의 지양과 환경 친화적 이슈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교사들은 자원의 분포나 통계를 단순 나열하는 서술 방식에 대해 “자칫 암기 위주의 과목이 될 수 있으므로 그래프 암기 등의 내용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의 환경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친환경적 전환 구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세계 식량 시장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곡물 메이저 기업의 독점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구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Ⅲ. 공업과 무역’ 단원

‘Ⅲ. 공업과 무역’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

표 6. Ⅲ. 공업과 무역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Ⅲ-1-1	• 공업활동의 특성과 공업 입지 요인 -원료·시장·노동 지향 입지	3.97	1.20
Ⅲ-1-2	• 공업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공정·부정적 측면: 인간소외, 오염, 불균형	4.22	0.99
Ⅲ-1-3	• 유연 생산 체제 및 환경 친화적 구조로 전환	4.43	0.93
Ⅲ-2-1	• 공업 입지론의 개념과 원리 -베버의 공업입지	3.36	1.42
Ⅲ-2-2	• 중화학 공업의 입지 특성 -적합지 지향, 원료 지향, 시장 지향	3.76	1.27
Ⅲ-2-3	• 초국적 기업의 입지 원리 -노동의 공간적 분업, 글로벌 가치사슬	4.63	0.57
Ⅲ-3-1	• 우리나라 공업 발달 및 구조 변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기업의 이중구조	4.31	0.89
Ⅲ-3-2	• 우리나라 주요 공업 지역 형성과 변화 -수도권, 남동해, 남서해안 등	4.14	1.02
Ⅲ-3-3	• 세계 주요 공업 지역 형성과 변화 -서부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등	4.19	1.06
Ⅲ-3-4	• 공업 집중에 따른 문제점 -지역 간 불균형, 환경 오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국가균형발전	4.52	0.70
Ⅲ-4-1	• 무역의 발생 원인과 무역 이론 -비교우위, 절대우위	3.93	1.17
Ⅲ-4-2	• 우리나라 무역의 발달 및 무역구조 -시대별 수출품, 높은 무역의존도	4.08	1.03
Ⅲ-4-3	• 세계무역기구와 경제 블록 -EU, AU, ASEAN, USMCA, MERCOSUR -RCEP, IPEF	4.27	0.98
Ⅲ-4-4	•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 방안 -산업 구조 고도화, FTA	4.42	0.82

술 통계는 표 6과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16($SD=0.74$)으로 나타났다. 이 단원에서 공업 입지 요인, 베버의 공업 입지, 무역 이론 등 고전 입지 이론과 관련한 내용 요소는 적합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공업의 발달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초국적 기업의 성장, 노동의 공간적 분업, 글로벌 가치사슬 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입지 이론의 개념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지리는 경제 공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공간 불평등과 같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 설명력이 낮아진 고전 공업 입지 이론의 경량화와 현대 경제 경관의 흐름을 반영한 학습 재구성 요구이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전체 62개 내용 요소 중 두 번째로 낮은 3.36($SD=1.42$)의 적합도를 보였다. 교사들은 이에 대해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이 일반화된 오늘날 현실 설명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이론과 현실이 잘 맞지 않아 가르치기에 난감하다”는 어려움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난이도 상승으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주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베버 제외”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었다. “입지 요인을 실제로 분석해 보는 대안적 활동 중심의 구성”이 필요하며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다루더라도 “베버 이후의 이론들이 왜 등장했고 어떤 한계를 보완하려 했는지 이론의 발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한 초국적 기업의 입지 원리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교사들은 “현대 사회의 다국적 기업의 입지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생들의 실세계 안목을 넓히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경제 과목과 차별화된 지리 고유의 ‘무역’ 관점 확립이다.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등 전통 무역 이론에 대해 교사들은 “경제 교과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리 교과만의 차별화된 설명이 필요하다”며 과목 간 내용 중복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 교과 고유의 정체성을 부각하여 “부산항의 무역항으로서의 가치나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정치적 상황에 따른 무역항로 변화 등 지리 교과다운 무역 설명” 도입을 제안하였다.

(4) ‘Ⅳ. 서비스 산업’ 단원

‘Ⅳ. 서비스 산업’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7과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26($SD=0.69$)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단원에서 중심지 이론, 교통 이론 등 경제지리의 고전 이론에 대한 적합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산업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모빌리티와 4차 산업 혁명, 지식 정보 산업 등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의 3단원과 같이 경제지리의 고전 이론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 요소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4차산업, 지식 정보 산업 등 오늘날 우리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 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전 중심지 이론과 교통 비용 모델에 대해 교사들은 “난이도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도·소매업의 소비 패턴 변화를 다룰 때 백화점부터 온라인 매장으로 이어지는 서술 구조가 “단순히 선형적인 발전 서사로 읽힐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나 비구조적 요인이 소비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모빌리티와 지식 정보 산업에 대해 교사들은 첨단 산업지역의 지명을 단순히 암기하는 전통적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의 형성, 성숙, 분산과 같은 동태적 변화 과정을 다루어야 학생들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특징을 스케일을 달리하여 다루거나”, 고차 서비스업의 도심 집적이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공간적 결과를 연계하여 다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5)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단원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8과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06($SD=0.85$)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단원의 내용 요소는 주로 우리나라 국토 개발 방식과 이리

표 7. IV. 서비스 산업 발전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IV-1-1	•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종류 -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4.37	0.82
IV-1-2	• 서비스 산업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 경제의 서비스화, 고용창출 효과, 승수효과 등	4.45	0.77
IV-2-1	• 중심지 이론 - 최소요구치, 재화도달범위, 배후지	4.08	1.16
IV-2-2	• 중심지의 계층적 포섭 원리 - 중심지 기능 상호 관련성	3.95	1.25
IV-2-3	• 소비 패턴의 변화와 도소매업의 성장·쇠퇴 -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온라인 매장	4.36	1.01
IV-3-1	• 교통 수단별 특성 - 기종점비용, 주행비용, 운송비용곡선	3.89	1.21
IV-3-2	• 4차산업 혁명과 결합한 모빌리티	4.44	0.82
IV-3-3	• 교통 발달에 따른 지역 변화 사례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빨대효과 등 - 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영향	4.60	0.62
IV-3-4	• 지식 정보 산업의 특성 - 재택근무, 클러스터, 정보 격차	4.36	0.91
IV-3-5	• 지식 정보 산업 발달 사례 - 대덕밸리, 방갈로르, 실리콘밸리, 소피아양티폴리스	4.33	0.99
IV-4-1	• 관광산업의 특성 - 굴뚝 없는 공장, 고부가가치 산업	4.25	0.93
IV-4-2	• 우리나라 주요 관광 자원 - 전국 7개 문화 관광권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자연경관 - 핫플레이스와 장소마케팅	4.19	1.09
IV-4-3	• 세계 주요 관광 자원 - 세계 주요 휴양지 - 음식과 축제와 관련된 관광자원	4.14	1.13
IV-4-4	• 관광산업이 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	4.30	0.99

표 8. V.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V-1-1	• 지역개발 방법과 필요성 - 하향식·상향식 개발, 거점·균형 개발	4.15	1.06
V-1-2	•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계획 - 1차~5차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계획 - 국토 불균형,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4.03	1.07
V-1-3	• 세계의 지역 개발 계획 사례 - 아마존, 파리 신도시, 독일 보름 폐광 등	4.17	1.03
V-1-4	• 통일 후 바람직한 국토 개발 방향 - 시베리아횡단철도, 비무장지대 등 - 경제특구, 남북협력 방안	3.97	1.24
V-2-1	• 환경문제 발생으로 나타나는 지역갈등 - 공업단지 조성과 오염물질 배출	4.03	1.07
V-2-2	•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 혐오시설 설치와 넘비현상	4.00	1.08
V-2-3	• 자연 자원 개발과 환경 문제 - 광산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 태양광·풍력발전 건설, 댐 건설, 자연 복원 사업	4.10	1.04

한 개발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는 오늘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경제지리에서 가르쳐야 할 고유한 내용인지에 대한 의문이 원인이라고 파악된다. 이는 교사들의 서술형 응답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된 대단원 구성의 불필요성과 타 단원으로의 흡수 요구이다. 교사들은 ‘Ⅴ.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를 별도의 독립 범주로 두기보다 기존 단원에 통합 연계할 것을 직접 제안하였다. 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을 보면 교사들은 “5단원의 내용은 따로 단원 구성 없이 관련된 1~4 단원에도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환경 문제 등을 따로 떼어놓고 배우기보다는 앞서 자원, 도시 등과 관련하여 소단원으로 배우는 게 내용의 경량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1 단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같이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타 지리 선택과목과의 내용 중복에 따른 고유성 결여에 대한 우려이다. 내용 중복에 대한 우려는 이전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우연섭, 2004; 임은진, 2023), 경제지리 내용요소 선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교사들은 “왜 경제지리여야 하는가? 통합사회나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로 충분하다”며 경제지리 과목의 독립적 개설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1~5차는 굳이 안 배워도 될 것

같다”라거나 “국토 개발 계획 제외”, “도시화 환경문제 삭제” 등 학교 교실 현장과 다소 동떨어지고 암기 유발 우려가 큰 정적인 내용 요소들을 덜어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6)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단원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단원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적합성 기술 통계는 표 9와 같으며, 이 단원의 평균 점수는 4.23(SD=0.80)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단원의 내용 요소 가운데 IMF, IBRD 등 경제협력 기구와 OPEC, ACPC 등 특정 자원의 협력 기구 등에 대한 적합도 점수는 낮게 산출된 반면, 초국적 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의 명칭, 기능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교육적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 기업들의 성장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지리 교육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야 할 학습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통계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실제적 가치(M=4.54)가 높게 나타난 흐름과 맞물려, 교사들은 한국 기업의 성장과 진출을 유의미하게 다루기를 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의 다각화 과정을 단순 사실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맥락과 결합한 지리적 원리로 구조화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상경

표 9. Ⅵ.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단원의 내용 적합성 기술통계

단원	내용 요소	M	SD
Ⅵ-1-1	• 세계 경제 협력 기구 종류와 역할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WTO	4.08	1.05
Ⅵ-1-2	• 지역경제 협력기구 -EU, APEC, RCEP, IPEF	4.19	1.00
Ⅵ-1-3	• 특정 자원 협력기구 -OPEC, 커피생산국연합(ACPC)	4.10	1.12
Ⅵ-1-4	• 다국적 기업의 역할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확장 -긍정 및 부정적 측면	4.54	0.69
Ⅵ-2-1	•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4.16	1.01
Ⅵ-2-2	• 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과 영향	4.33	1.00

및 통상 진로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느끼고 실세계 경제 공간의 작동 원리를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 중심으로 구성할 때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들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해 다룰 때 중립적 역할 소개에 그치기보다 구조적인 한계와 배경을 균형 있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IMF, IBRD, WTO 등의 단순한 역할 소개에 그친다면 현재의 국제 경제 질서가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IMF, IBRD, WTO 등 서구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설계된 배경과 저개발국의 구조적 교역 조건 약화”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누가 이 질서를 만들고 소외되는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순한 기구 소개를 넘어 국제기구의 형성 배경과 국제 경제 질서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현장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인식

1)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 인식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교사들은 경제지리의 교육적 유용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경제지리는 학생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M=4.53$, $SD=0.76$), ‘경제지리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M=4.53$, $SD=0.81$)로 평균 점수는 높고, 표준편차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지리가 학생들의 삶과 진

로 선택에 유의미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는 교사들의 인식이 비교적 일관됨을 보여준다.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수용성 및 교수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지리 과목에 관심이 있다.’($M=4.37$, $SD=0.99$)와 ‘경제지리를 가르칠 수 있다.’($M=4.31$, $SD=0.88$)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지리를 가르치고 싶다.’($M=4.17$, $SD=1.10$)는 긍정적 응답이 우세하지만, 앞의 두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크다. 이는 교사들이 경제지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경제지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경제지리 교육과 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경제지리 교육은 필요하다.’($M=4.44$, $SD=0.92$), ‘경제지리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M=4.27$, $SD=1.12$)는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독립된 선택과목으로의 신설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지리 과목이 개설되면 학생들은 선택할 것이다.’($M=3.85$, $SD=1.13$)는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와 독립된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사들은 실제 개설되었을 경우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사들의 경제지리 과목 개설 인식이 주요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추가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들의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학생 선택 가능성

표 10. 교사 인식 기술통계

문항	N	M	SD
경제지리는 학생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	118	4.53	0.76
경제지리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18	4.53	0.81
경제지리 과목에 관심이 있다.	118	4.37	0.99
경제지리를 가르치고 싶다.	118	4.17	1.10
경제지리를 가르칠 수 있다.	118	4.31	0.88
경제지리 교육은 필요하다.	118	4.44	0.92
경제지리 과목이 개설되면 학생들은 선택할 것이다.	118	3.85	1.13
경제지리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118	4.27	1.12

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 사이의 간극은 과목 개설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두 인식 간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관련 변인 및 서술형 응답을 함께 검토하여 이러한 인식의 간극과 관련된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경제지리 과목 개설 인식에 대한 배경 변인별 차이 검증

성별, 학교유형, 학교 급, 근무 기간, 근무 지역, 경제지리 교수 경험, 경제지리 학습 경험 등 배경 변인에 따른 교사의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집단별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추가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비교에 따른 유의수준 보정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유의확률은 보정되지 않은 값이므로 결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보정 전 유의수준($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지리가 학생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여성($M=4.67, SD=0.55$)이 남성($M=4.39, SD=0.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제지리 과목 인식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제지리 학습 경험에 따라 학생의 선택 가능성,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 경제지리 교수 의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창 시절 경제지리 학습의 경험이 있는 교사는 학생의 선택 가능성($M=4.21, SD=1.04$),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M=4.68, SD=0.81$),

경제지리 교수 의향($M=4.50, SD=1.02$)이 경제지리 학습의 경험이 없는 교사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 자신의 경제지리 학습 경험이 해당 과목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관심과 선택 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교사들에게 경제지리에 대한 전문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과목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전공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학생 지도 능력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Fridrich, 2021), 향후 교사 연수를 통해 경제지리를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별과 경제지리 학습 경험 이외의 배경 변인, 즉 학교 유형 및 학교급, 교직 근무 기간, 근무 지역에 따른 경제지리 과목의 인식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이는 해당 배경 변인에 따라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에 대한 간극 분석

(1)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차이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의 과목 선택 가능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4.44($SD=.920$)로, 학생의 과목 선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평균 3.85($SD=1.129$)보다 0.59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6.632, p<.001$), 평균 차이의 95% 신뢰구간은 [.416, .770]이었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

표 11. 배경 변인에 따른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 차이

배경 변인	인식 문항	구분	N	M	SD	t/F	p
성별	학생의 삶에 유용한 지식 제공	남	61	4.39	0.90	-2.010	.047
		여	57	4.67	0.55		
경제지리 학습 경험	학생 선택 가능성	있음	34	4.21	1.04	2.320	.023
		없음	84	3.70	1.14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관심	있음	34	4.68	0.81	2.390	.020
		없음	84	4.25	1.04		
	경제지리 교수 의향	있음	34	4.50	1.02	2.180	.033
		없음	84	4.04	1.11		

표 12.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인식 차이

비교 문항	M	SD	MD	차이의 95% 신뢰구간	t(df)	p	Cohen's d_z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A)	4.44	.920	0.593	[.416, .770]	6.632(117)	<.001	.610
학생 선택 가능성(B)	3.85	1.129					

생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과 크기 또한 $d_z=.610$ 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에는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면서도, 학생들이 실제로 경제지리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가치 판단과 학생 수요에 대한 현실적 전망 사이에 유의미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 크기를 나타내어, 단순한 평균 점수상의 차이로만 보기 어렵다. 교사들은 경제지리가 학생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과목에 대한 낮은 인지도, 대학입시와의 연계 부족, 다른 사회과 선택과목과의 경쟁 및 학교의 개설 여건 등으로 인해 학생의 실제 선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차이에 따른 인식 유형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과 경제지리 과목의 선택 가능성 문항에 대한 응답의 차이에 따라 인식 관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응답 결과를 보면 표 13과 같다. 교육 필요성 우위형은 경제지리의 교육적 필요성을 학생의 실제 과목 선택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교사들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는 것은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학생의 실제 선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유형은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선택 가능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극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화 및 유형별 차이 검증은 탐색적 분석으로 다중비교에 따른 유의수준 보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개별 분석 결과를 확증적인 집단 차이로 일반화하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향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이 집단의 교사들이 작성한 서술형 답변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과목명이 유발하는 학업적 부담감과 심리적 거리감이다. 서술형 의견에서도 “경제+지리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주는 심리적 거리감이 크다”거나 “경제라는 이름 자체가 학생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교사들은 ‘경제’라는 단어가 주는 학업적 부담감과 ‘지리’라는 명칭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이 결합되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둘째, 입시 환경과의 괴리 및 내신 등급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이다. 교사들은 현재 수능 및 내신 체제에서 일반 사회 영역의 ‘경제’ 과목 자체가 겪고 있는 저조한 선택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사들은 “현재 경제 과목 선택자 수가 저조하듯 경제지리 역시 유사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지적하거나 “수능 선택률과 과목의 위상을 고려할 때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고전 이론 중심의 높은 학습 난이도와 과도한 학습 분량에 대한 경계이다. 교사들은 과거 교육과정에서

표 13. 경제지리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의 차이에 따른 유형

응답 유형	기준	N	%	(A) M	(B) M	MD
교육 필요성 우위형	(A) > (B)	53	44.9	4.53	3.04	1.49
동일 인식형	(A) = (B)	58	49.2	4.53	4.53	0.00
학생 선택 가능성 우위형	(A) < (B)	7	5.9	3.00	4.29	-1.29
전체		118	100.0	4.44	3.85	0.59

* 여기서 ‘우위’는 두 구성개념 간의 이론적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응답 척도에서 나타난 두 문항의 상대적인 점수 차이를 의미함.

수리적 계산과 공식 암기 위주로 출제되었던 전통적 입지 이론 평가 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난이도 조절과 학습량 조절에 실패하면 선택률이 극히 낮을 것”이라며 “고전 입지론의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는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동일 인식형은 경제지리의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 집단이다. 이 집단의 응답 결과를 보면 표 14와 같다. 동일 인식형은 전체 응답자의 49.2%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87.9%가 두 항목을 모두 4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도 4.53점으로 높게 나타나, 동일 인식형의 대부분은 두 항목을 단순히 동일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경제지리의 교육적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을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두 항목에 모두 5점을 부여한 교사가 72.4%였다. 이는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학생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함께 나타나는 교사 집단이 일정 비율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일 인식형은 두 인식 사이의 간극이 작은 집단이며, 그중 대다수는 두 측면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고수준 긍정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인식형 가운데 2점과 3점을 부여한 교사도 7명(12.1%) 포함되어 있다.

이 집단의 교사들이 작성한 서술형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 집단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과목 선택을 확산하는 근거는 대입 제도 및 진로 요구와 밀착되어 있다.

첫째, 교사들은 상경 계열 진학 희망자들의 수요를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경영, 경제, 통상, 무역 등 상경 계열 선호 현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높은 선택률을 보일 것이라 확신했다. 교사들은 “인문·사회 계열에서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한국지리보다 경제지리의 수요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거나 “지리에 생소했던 상경계 지망 학생들을 대거 유입하여 지리과의 저변을 넓힐 기회”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

력 및 특기사항을 정교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맞춤형 과목이라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다.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유용한 진로선택 과목”이라며 “경영 및 경제학과의 연관성을 선명히 제시한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판단하였다.

셋째,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과목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사들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하여 실생활 지식을 제공하기에 과거에도 수업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증언하며 “실제 세계가 어떤 경제적 요인을 통해 작동하는지 깨닫게 하는 유용한 교과”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동일 인식형 내부에서도 두 항목 모두에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준 소수의 교사들은 “이미 실패한 과목을 다시 살리는 것에 반대한다”라거나 “독립 과목으로 개발할 교육적 타당성이 전혀 없고 기존 지리 과목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라며 명확한 반대 의사와 신중한 태도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이 집단의 대다수 긍정형 교사들은 “우리는 공간을 떠나 경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신설을 전폭 지지하였으며,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실무 연수 인프라와 양질의 지도서와 교재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덧붙였다.

학생 선택 가능성 우위형은 경제지리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가보다 학생의 관심과 선택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한 집단이다. 이들은 경제지리가 학생의 흥미나 진로 요구에 부합하여 선택과목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독립된 과목으로 신설해야 할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학생의 선택 수요가 곧바로 독립 과목 신설의 교육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의 관심을 경제지리의 고유한 교육 목표, 내용 체계 및 교육적 성과와 연결하여 과목 신설의 정당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은 전체 응답자의 5.9%(7명)에 불과한 소수 집단이지만, 교육과정 논의에 있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 집단의 서술형 응답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교사들은 입시를 위한 스펙 도구로서의 과목 선택 가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 주된 이유는 학문적 흥미보다는 철저히 입시를 위한 실리적 목적 때문이다. 즉, “경영 및 경제학과 진학을 원하는 다수의 학생이 자신의 생기부 포트폴리오를 채울 도구로서 경제지리를 유용하게 선택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측이다.

둘째, 과목 신설 필요성에 대한 우려 및 유보적 입장이

표 14. 동일 인식형 점수 분포

동일 점수	N	%
2점	4	6.9
3점	3	5.2
4점	9	15.5
5점	42	72.4
전체	58	100.0

다. 학생들이 과목을 단순히 입시용 도구로 소비하는 현상에 대한 학문적 우려와 과목 정체성 약화를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경제지리를 개설해도 아이들이 지리학의 본질을 학습하기보다 경제학과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에 따라 “굳이 독립된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여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기존 지리 과목 내부에서 관련 관점을 선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과목 신설 거부 의견을 개진하였다.

(3) 선택과목으로서의 ‘경제지리’ 신설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종합 의견 분석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선택과목으로 경제지리 과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서술형 응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장 교사들은 경제지리 과목의 신설 가능성에 대해 높은 필요성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과거 교육과정의 한계를 우려하고 성공적인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제지리 과목 신설의 당위성 지지와 지리과 교과 영역의 외연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이다. 대다수 교사는 현대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공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경제지리가 필수적이라는 학문적 당위성에 강하게 공감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경제를 연구할 때 공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실제 세계가 어떤 경제적 요인을 통해 작동하는지 깨닫게 하는 유용한 교과”라며 신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울러 상경 계열 진로 지향이 뚜렷한 학생들의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타 교과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리적인 전망도 확인되었다. 즉, “인문·사회 계열에서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지리과 저변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일반사회 영역 경제 과목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켜 지리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실증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고전 입지론 중심의 수리적 계산을 지양하고 현대적 실용 지식 위주로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적 재구성 요구이다. 교사들은 과거 7차 교육과정기 경제지리 과목의 쇠퇴를 초래했던 주된 요인으로 고전 이론 중심의 수리적 계산을 지목하며 거부감을 토로하였다. “변별만을 위해 지나치게 수학 계산적이고 수리적인 내용으로 흐르는 구성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 대신 “이론과 통계 위주의 고루한 과정을 답습

하기보다, 실제 창업 시 최적 상권을 분석하거나 GIS를 연계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중심 활동”으로 과목을 개편해야만 학생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내용 요소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초국적 기업의 현대적 입지 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구조, 전 세계적 가치사슬 망의 실태” 등 최신의 글로벌 이슈를 생생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인접 지리 선택과목과의 내용 중복 문제의 조율 및 과목명 변경 제안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라는 제한된 이수 시간 속에서 유사한 내용이 다수의 지리 선택 과목에서 중복 기술될 경우 학생들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한국 지리 탐구, 세계시민과 지리 등 선택과목과의 명확한 경계 배분과 내용 요소 집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경제지리’라는 기존 명칭이 수험생의 심리적 장벽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지리의 교과명을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건”, “세련되고 직관적인 과목명 작명”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사들은 “경제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세계경제와 공간’, ‘지역과 경제’, ‘경제 공간의 변화’ 등 현대적 감각에 걸맞은 명칭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개설된 “도시의 미래 탐구”처럼 지리적 색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학교 현장의 실무적 수업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과목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 마련이다. 교사들은 어렵고 복잡한 경제 분석을 학교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전문 인프라가 사전에 완벽히 구비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특히 “교사들을 위한 시의성 있는 실무 연수 인프라 확보”와 함께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양질의 지도서 및 활동 중심 교재의 선제적인 개발 및 무상 보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이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강제 편성되어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학생 참여형 수업 구안이 용이한 ‘융합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수하게 하는 구조적 설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신설 과목이 개발될 때,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활동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심승희·김현주, 2016; 김지수, 2020).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과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경제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리 선택과목을 바탕으로 내용 적합성에 대한 문항과 김인엽(2025)의 설문 도구를 바탕으로 경제지리 과목의 인식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지리교육과 교수 3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쳐 전국의 지리 교사 1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서술형 응답은 연구자 2인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전체 평균은 4.19점($SD=0.64$)으로 높았으나, 세부 항목은 2.95~4.64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간적 불균등, 글로벌 가치사슬, 초국적 기업, 에너지 전환, 교통과 지역 변화, 식량 안보, 상품사슬, 지방 소멸 등 경제활동과 지역의 관계 및 변화 과정을 다룬 내용은 높게 평가하였으며, 고전 입지 이론과 무역 이론, 자원의 분포와 특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경제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학생의 삶에 대한 유용성과 진로 선택에 대한 도움은 모두 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필요성(4.44점), 과목 관심(4.37점), 교수 가능성(4.31점), 과목 신설 필요성(4.27점)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생 선택 가능성은 3.85점으로 가장 낮아, 교사들이 경제지리의 교육적 가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생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은 학생의 경제지리 과목 선택 가능성보다 0.59점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632$, $p<.001$, $dz=.610$). 유형별로는 동일 인식형(49.2%), 교육 필요성 우위형(44.9%), 학생 선택 가능성 우위형(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인식형의 87.9%가 두 항목을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한 ‘고수준 긍정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전체 교사의 44.9%는 교육적 필요성에 비해 학생 선택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 분석 결과는 교사들이 경제지리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공간적 불균등, 글로벌 가치사슬, 초국적 기업,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식량 안보 등은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고전 입지 이론과 자원의 단순 분포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는데, 해당 문항의 평균 점수는 낮았지만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응답자 간 인식의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낮은 평가는 그동안의 교육 내용 구성과 조직의 한계로 인해 암기 위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진 데 대한 반응일 뿐, 자원 분포의 공간적 불균등과 이로 인한 자원의 이동, 관련 입지 특성이 지닌 경제지리학의 본질적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조성욱, 2014; 이종호·조철기, 2026). 따라서 과거 고전 입지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 수리적 계산 문항을 출제하던 관행을 경제하되, 경제지리학이 주류 경제학의 계량적 인식의 한계를 바로잡는 해석적 특징이 강한 학문(박삼욱, 2008)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전 입지론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의 핵심 쟁점은 결국 산업입지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지형학적·지형학적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다(이종호, 2014; 한주성, 2021). 따라서 고전 입지 메커니즘과 자원의 공간적 상호작용이라는 과목의 본질적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현실 공간의 불균등발전과 정책적 맥락을 다각도로 읽어내는 경제지리 문해력(이종호·조철기, 2026) 함양 중심의 해석적 분석 도구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정성훈, 2024).

둘째, 경제지리 내용이 기존 지리 과목의 일부 단원으로 포함될 때와 독립 선택과목으로 구성될 때의 교육과정적 기준과 관점을 명확히 차별화해야 한다(채나미·성정원, 2026).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경제지리 요소가 타 지리 과목의 일부 내용으로 수록될 때는 주로 현상적 분포, 단편적 지리 이슈, 혹은 일반적인 공간적 현황 파악 수준에 그쳐 경제지리의 핵심 이론과 분석 틀이 상당 부분 축소·생략되는 한계를 갖는다(조성욱, 2014; 채나미·성정원, 2026). 반면, 경제지리가 독립 선택과목으로 성립할 때는 단순 현상 소개를 넘어 주류 경제학의 수리적 추상성과 구분되는 해석적 공간 분석 틀, 글로벌 가치사슬(GLVC)과 첨단산업 입지의 지형학적 맥락, 그리고 상경계열 및 통상 진로와 직접 연계되는 경제지리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성훈, 2024; 이종호·조철기, 2026). 아울러 물 자원, 산림 자원,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은 해당 내용의 교육적 중요성이 낮기 때문

이라기보다 다른 지리 과목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사회 영역의 경제 과목이 시장의 원리, 경제적 선택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경제지리는 지역 개발과 환경 문제 역시 독립된 대단원으로 제시하기보다 산업, 자원, 서비스업 등 관련 단원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적 결과로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내용 중복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목의 내용 체계는 ‘경제활동과 공간 재편’,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 변화’, ‘공간적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대안’을 중심축으로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성을 갖추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지리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학생의 실제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술형 응답을 종합하면 이러한 간극은 ‘경제’와 ‘지리’라는 과목명이 주는 심리적 부담, 고전 이론 중심 과목이라는 인식, 수능 및 대입과의 연계 부족, 다른 사회과 선택과목과의 경쟁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결과를 학생 선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동일 인식형의 대부분이 교육 필요성과 학생 선택 가능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고, 교사들은 상경 계열 진로 수요, 실생활과의 관련성, 학생부종합전형과의 연계 가능성을 경제지리의 경쟁력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제지리 과목에는 긍정적인 선택 수요와 현실적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경제지리 과목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당위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과목의 성격과 현대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면서 학생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과목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와 공간’, ‘경제 공간의 변화’ 등은 검토 가능한 사례이지만, 과목명 변경은 경제지리의 학문적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지리를 상경 계열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시, 지역계획, 환경, 에너지, 국제관계, 관광, 물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진로와 연결해야 한다. 또한 GIS, 통계자료, 지역 사례를 활용한 문제 해결형 수업 자료와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 및 지도서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리적 문제 풀이와 암기 중심 과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탐구 및 프로젝트 수업에 적합한 융합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지리는 단순히 암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Şahin, 2023).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리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지리 과목의 교육적 타당성과 개설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중 중학교 교사가 87.3%를 차지하고 특정 권역의 비중이 높아, 연구 결과를 전체 지리 교사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과정 편성 담당자를 충분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선택 가능성은 학생의 실제 선택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교사가 예상한 학생 수요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명, 내용 구성, 진로 연계 방식에 따른 선택 의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 대학 진학 희망 계열, 진로 및 적성이 진로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고영빈·지은림, 2022)라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지리 과목이 어떠한 진로 선택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간과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선택 의향 및 교사의 수업 지도 역량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경제지리 내용 요소의 적합성 검토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로 한정하였다. 이에 최신 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의 경제 공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지리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최신 경제지리 이론과 현실 경제 공간의 쟁점을 반영한 내용 요소를 발굴하고, 경제지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지리 과목의 필요성과 선택가능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은 제한된 수업 시수, 다른 과목과의 경쟁 관계, 교원 수급, 학교의 개설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과목 개설 과정과 제도적 여건을 함께 분석하여 경제지리 과목의 개설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차기 교육과정에서 경제지리 과목의 재도입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설명

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제지리를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학계와 교육 현장이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빈·지은림, 2022,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 도입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운영 및 이수에 대한 고교생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1085-1102.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 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 구양미, 2020,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209-228.
- 김민우·박선미, 2019,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에서 경제적 세계화를 어떻게 보는가?: 2015 개정 중학교 사회과 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8(4), 13-30.
- 김인엽, 2025, “금융 교과 신설에 관한 교사 인식 분석 연구” 상업경영연구, 39(2), 107-122.
- 김지수, 2020, “고등학교 「여행지리」 과목의 학교교육 현황: 교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4), 17-35.
- 박삼옥, 2008, “경제지리학의 패러다임변화와 신경지리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 8-23.
- 박선미, 2018,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쟁점과 전망」, 문음사.
- 심승희·김현주,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 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87-98.
- 안종욱, 2012, “고등학교 「경제지리」 과목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33-48.
- 우연섭, 2004, “경제지리 교과서의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38(2), 99-114.
- 이병민,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경제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2), 205-206.
- 이종호, 2014,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경제지리적 검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624-631.
- 이종호·조철기, 2026, “AI 시대, 경제지리학의 유용성과 경제지리 교육의 존재 이유,” 지역과 지리, 32(3), 234-251.
- 이종호·채민수, 2026, “경제지리 교육을 위한 장소기반 학습(PBL) 중심의 답사 코스 개발: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9(2), 1-16.
- 임은진, 2023,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주요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1-13.
- 정성훈, 2024,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에 대한 경제지리적 검토: 2022 개정 세계시민과 지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7(4), 396-406.
- 조성욱, 2014, “경제지리 교육내용 구성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한국지리학회지, 3(1), 1-15.
- 채나미·성정원, 2026, “경제지리’는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세계시민과 지리」와 「한국지리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5(2), 213-229.
- 한주성, 2021, “經濟地理學への招待(경제지리학으로의 초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1), 122-124.
- Fridrich, C., 2021, Teaching economics outside one's own subject area at lower secondary level in Austria: enriching or embarrassing?,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20(1), 30-64.
- Massey, D., 2005, *For Space*, London: Sage.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2016, 「공간을 위하여」, 서울: 삼산).
- Şahin, V., 2023, Comparison of economic geography contents in Turkey and Turkmenistan geography curriculum: Grades 10th, 11th and 12th, *Journal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10(1), 95-115.
- 교신 : 채나미, 2764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507(이메일: coskal@korea.kr)
- Correspondence: Nami Chae, 27644, 507 Sinnæ-ro,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Email: coskal@korea.kr)

투고접수일: 2026년 8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9월 9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20일